

하이델베르크 애니칼라, 소량 인쇄를 혁신하다

애니칼라 '90:50:50' 으로 생산성 향상 일반 상업 · 패키지 · 라벨 및 UV 인쇄에 사용

하이델베르크 애니칼라는 단통과 잦은 작업전환에 비용효율적인 기술이다. 일반 잉킹 유닛 인쇄기에 비해 손지를 90% 절감할 수 있으며, 작업준비시간은 50%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성은 기존보다 50% 향상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50×70cm 규격대로 확장돼 2014년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제공 | 한국하이델베르크



전 세계 수많은 인쇄사들이 비용 효율적인 애니칼라 잉킹 유닛 기술을 사용해 단통과 잦은 작업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2006년 IPEX 전시회에서 35×50cm 규격에 맞춰 애니칼라 기술을 공개했다. 일반 잉킹 유닛을 갖는 인쇄기와 비교해 애니칼라의 이점은 '90:50:50'로 요약되는데, 90% 손지 절감, 50% 작업준비시간 절약, 50% 생산성 향상을 의미한다. 매우 빠르고 안정된 잉크 올림으로 OK 시트는 10매 인쇄 후 바로 얻어지며, 최상의 오프셋 품질과 최대의 사용자 친화성을 자랑한다. 스피드마스터 SM/SX52 애니칼라 시리즈는 1200개 인쇄 유닛, 250대 인쇄기가 전 세계에 설치됐다. 상업, 패키지, 라벨 등의 단통인쇄에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4도에서 10도까지 양면기와 UV 기술을 포함해 구성할 수 있다.

50×70cm 규격대로 확장

성공적 애니칼라 기술은 50×70cm 규격대로 확장돼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를 통해 2012 드루파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였다.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는 T3절 규격에서 단통 인쇄를 원하거나 여러 형태를 섞어 웹투프린트를 하려는 인쇄인들이 고품질을 얻고자 할 때 이상적이다.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는 8도까지 편면 인쇄기로 제공되며, 코팅 유닛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간당 1만5000매 속도로 인쇄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간다. 양면기와 UV 기술을 포함한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 기술은 2014년 말쯤 출시할 계획이다. 하이델베르크 기계 총 책임자 스테판 플렌츠는 "인쇄의 흐름은 모든

HEIDELBERG

규격에서 단통과 잦은 작업교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단통 인쇄를 위한 비용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스피드마스터 SX52 애니칼라,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델베르크는 지난 1월 전 세계에서 150명 고객 이상이 참여한 ‘애니칼라의 날’ 행사에서 고객들에게 애니칼라 기술의 이점을 선보였다. 고객들은 애니칼라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스피드마스터 SX52 애니칼라, 스피드마스터 XL 75 애니칼라의 주요 작업을 확인했다.

세계 최초 도입한 Medienhaus Reuffurth 인쇄사

Medienhaus Reuffurth 인쇄사는 독일에 위치한 인쇄사로, 드루파 전시장에 공개됐던 스피드마스터 XL75 애니칼라, 5도 코팅 유닛을 장착한 인쇄기를 도입해 2012년 8월부터 사용하고 있다. Reuffurth는 석판 인쇄를 제작사로도 유명하며, 70명이 넘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 독일과 해외 유명 고객들에게 고품질 인쇄물을 제공한다.

Reuffurth 사장은 “인쇄기는 처음 4달 만에 기대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였다.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이 장착된 전통적 스피드마스터 XL75와 비교해 애니칼라는 65%까지 손실을 절감한다. 잉크 올림이 빠르고 어려운 인쇄물에서도 최고 품질을 실현한다”고 말했다. 스피드마스터 XL 75 애니칼라는 이미 650개 작업과 총 130만매 이상을 생산했다. 용지는 80g/m² 용지에서부터 두꺼운 카드, 코팅되거나 코팅되



Reuffurth 인쇄사 대표

지 않은 용지까지도 가능하다. 코팅된 작업은 바로 후가공에 보낼 수 있어 납기가 단축된다. Reuffurth 사장은 “이 인쇄기는 매우 사용하기 편하다. 애니칼라 인쇄기가 디지털 인쇄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며 품질은 훨씬 뛰어나다”고 말했다. 자동화된 공정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급하는 사피라 브랜드의 최적화된 인쇄 재료로 표준화된 효율적 작업도 가능하다.

Reuffurth에서는 애니칼라 인쇄기뿐 아니라 스피드마스터 XL105와 스피드마스터 XL75 모두 6도기에 코팅 유닛을 장착해 사용하고 있다. 모든 작업은 프리넥 워크플로를 통해 프리프레스에서는 컬러 매니지먼트를 활용해 표준화된 인쇄 공정을 실현된다.☞



XL75애니칼라가 설치된 Reuffurth 인쇄사 전경